

이완용의 자기변호(5월10일 강원도청 반비넛 자유마당에 게시된글)

강원도 소방본부장이 2021.5.14.일자로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와 행위의 정도, 댓가에 대한 비교형량을 떠나 이러한 사태 자체가 강원소방의 구성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사법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의 대리행위라 하더라도 실무자급에 불과한 경찰관들에게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 조직을 떠나야만 하는 우리 조직 수장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불행이며, 개인적으로도 불편하고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참모로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다하지 못한 역할에 대해 반성과 책임을 공감합니다.

우리는 소방서장이나 본부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특정 개인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충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이라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를 대표하는 기관장(서장, 본부장)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대한 존엄, 권위, 권한을 생각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그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은 물론, 내부(위법한 지시 등)로부터도 지켜야 할 책임이 구성원들(특히 참모)에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업무의 특성상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신뢰가 필요하며, 그래야 검찰이나 경찰기관의 지위고하를 막론한 끈끈함 정도는 아니더라도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과 더 나아가 조직에 대한 애정이라도 생길 수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어느 시기 부터인가 강원소방에는 **공의를 명분으로 투서나 제보 등의 음성적이며 극단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조직의 체계를 흔드는 사건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이슈가 발생했던 시기는 왕00 본부장(국장시기 을지훈련 근무 교대자 오찬 행사 언론제보), 전전임이었던 이00본부장(사적 비리 상급기관 투서), 전임이었던 이00본부장(무리한 소방령 승진인사 국민청원), 그리고 지금의 본부장(소방장비 구매 부적절 언론 및 경찰제보) 책임 기간에 발생했으며, 그 내용은 열기한 바와 같이 소방본부의 집행사무 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결과 전임 이00 본부장만이 임기를 마치고 중앙으로 영전되었고, 왕·이 본부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명예퇴직으로 자리를 내주었으며 현재 김 본부장은 직위해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에게는 수혜 또는 기회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이며 그게 우리 같은 일선 소방서의 직원들이 아닌 것은 자명합니다.(만일 드론을 구입하지 않았으면 마스크 2장 정도는 개인 지급될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위 사례들 이후에 누가 수혜를 봤는지 의식 있는 사람들은 함구할지언정 대강은 인지하고 있을테니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시기적으로도 공교로웠고, 기획된 의도가 느껴졌으며 누군가의 개인적인 반대급부가 존재하였습니다. 또 최근의 직위해제 사태에 있어서는 소문처럼 한때 소방본부장의 훈위병들이었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반대급부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감히 선량한 내부 고발자들로 둔갑 될 수 없다고 보며, 그들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과 건강한(?) 조직문화(소방본부의 계장급 이상 간부들 간 소통이 존재하나요? / 지역 패거리를 제외하고는 옆 동료를 믿을 수 있어 마음의 얘기를 터놓고 하실 수 있나요? 부조리가 많았던 예전에는 그래도 본부에도 정이라는 문화가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에 대한 우려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 사례를 통한 잘잘못의 정도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며, 조직 내부의 거악을 외부에 정보 제공을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선량한 내부 고발자를 비난하거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짧지 않은 소방관 생활에 수많은 부조리 등을 보고 경험해 봤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이루는 사회 속에서는 흔한 일이며, 언제나 법과 제도를 사용해야만 부조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과전이하~” 라는 게시글과 댓글 일부를 보고 이번 사태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에 합리적 의심이 들며, 위민행정, 공익, 내부고발, 청렴결백 등의 엄중하게 선택되어야 할 단어들이 남용되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되었음을 첨언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이완용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나레이션은 일견 중립적으로 그의 삶과 영욕을 조명하는 듯하지만 저는 마치 이완용의 변명 따위를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때 독립협회의 창립위원이었으며, 2대 회장이었지만 결국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도 을사늑약의 체결 명분을 씌어빠지고 무능한 군주와 열강의 침탈로부터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당시 조선의 권력자로서 할 수 있는 백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 변명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바쳐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진정한 구국 위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그리고 그 이후로 후손들조차도 오랜 세월 그 유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들과 유사한 대의명분을 내세운 것입니다.

저는 이완용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는 그 행위로 인해 부귀영화를 누렸고, 살아생전 개인의 영달은 물론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타주의자들은 자신의 안위를 걸고 현실의 부조리와 맞섰고, 그 과정은 희생이었으며, 그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불행이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존경과 우리가 본 받아야 할 가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협잡과 모략의 선동꾼들이 항상 그럴싸한 명분으로 자신을 포장하려 하고, 자신의 안위와 사익을 위해서 숨어서 총질을 해대는 것쯤은 잘 압니다.

나는 부조리 앞에 눈치보고 탐구하는 소방조직의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벌인 특정의 세력이 존재하고, 어디선가 숨어서 승리의 삼패인을 터트리고 즐기고 싶다면 마음껏 즐기시고, 본인들이 여지껏 성공했던 그 길을 그 방식대로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진중히 경고합니다.

최소한 사람으로서 신의를 알고 부끄러움이 있다면 조용히 자중하며, 당신들끼리 이전투구 속에 승승장구하여 열망하는대로 서장이 되시던 본부장이 되시던 뜻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조직을 위한다거나, 선후배 동료들의 침묵을 이용해 조직 구성원이나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팔이는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건 성숙한 의식과 선한 인간 본성의 일부라도 깃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역겹고 간악한 위선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ps.

1. 아래 “과전이하~” 쓰신분께 말씀드립니다. 관서장 회의때 잠깐 언급된 사안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선배들을 겨냥해 말씀하시니 솔직히 놀라웠습니다. 청나라 말기 이종우란 자가 제창한 ‘후흑학’이라는 학문같지 않은 처세술이 있습니다. 후흑학에 의하면 처세의 기본이되는 두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두꺼운 얼굴(뽀뽀함)을 뜻하는 면후(面厚)와 시커먼 속마음(음흉함)을 뜻한 ‘심흑(心黑)을 통달해야만 처세에 성공할 수 있다 합니다. 님께서는 면후에는 이미 경지에 오르신타하니 심흑의 경지를 더 같고 닳으신다면 대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선배의 조언이니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속성으로 가고 싶다면 주변에 심흑의 경지에 오른 친구 하나쯤은 쉬이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 잘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2. 카드놀이 좋아하시는 분께 충고드립니다. 그대가 쥐고 있는 히든카드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마 상대방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그림을 맞추려거나 폴하우스 이상의 족보가 손아귀에 들어오길 바랬었겠지요.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원페어로 상대방을 다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똑같은 방식으로 원페어의 패를 가진 상대방에게 그대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불행한 것은 당하고도 그 상대가 누군지 몰라 원망의 상대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3. 나는 그대들의 사고 수준을 이렇게 유추합니다. ①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는 확증편향의 사고구조를 가졌거나, ② 인생자체가 자기합리화나 자기기만의 생활화가 고착된 사고체계를 가졌거나, ③ 진정한 경쟁자를 만나지 못해 자기들만 잘나고 선후배 동료들의 의식 수준을 하짱로 보는 독선주의자이거나, ④ 그도저도 아니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 신분상승에 대한 탐욕과 권력욕으로만 가득찬 사리분별 능력이 미약한 진정한 하짱들이거나...
4. 아래 게시글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쫄마니 분들 혹은 당사자 분들, 위와 같은 내용은 소방의 정치꾼들이나 관심있지 일선서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잘 모릅니다. 속 보이는 행동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소방조직이 그대들 같은 사람들의 모략과 협잡에 의해 휘청거리는 나약한 조직일지라도 진실과 진심이 통하는 관계들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